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령도자



↑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9(1980)년 10월
←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1(1972)년 4월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잘 운영함에 대하여 교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3(1974)년 5월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3(1974)년 2월



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경축 평양시군중시위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9(1980)년 10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받고 정중하게 모실데 대하여 교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0(1971)년 12월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10월



새로 편찬한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도록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7(1988)년 5월



당창건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10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 참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9월

정론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자!

1

전당이 일시에 일떠섰다. 또한 불길처럼 열사복무의 열풍이 어디서나 일고 전선으로 뒤틀려나오던 일꾼들이 비상한 각오로 열사복무열풍에 몸을 싣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당중앙의 피끓는 부름에 일꾼들은 열사복무로 화답해나섰다. 인민은 혁명의 최전성기로, 당은 복무의 최전성기로 영광의 5월을 마중해가는 이 땅에서 우리 일꾼들은 당중앙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 기발이 되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오늘도 총전군의 표대, 지금 이 시각 가장 높이 울리는 혁명의 구령으로 높이 받들었다.

미더우다. 당의 전진에 몸을 부시며 일떠선 장한 모습이다.

수도의 일꾼들이 신발장이 없도록 땀 땀 때 얼리 조국의 북편 자갈밭에서는 살기 좋은 고장, 최한한 산골도살이 많아진다. 현실에서 일감을 찾고 민생을 지는 은골과 부산군의 일꾼들, 일심적인 인민의 제복을 늘여가는 운산군과 부진군의 일꾼들... 북방의 청진방에 가면 철우의 정으로 총일원들을 위하여 수산사업소 지베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동해기슭 문현방에 가면 대풍의 어머니로 사는 식료공장 일꾼의 미담이 심금을 울린다.

정말 좋다. 주제조선의 위성,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성 《광명성-4》 호박산성공으로 인민의 눈높이를 하늘에 닿고 《최소의 분량》, 《최고의 수준》이라는 말과 함께 인민의 금방식들이 쏙같이 늘어난다. 지기에 모 어떤 자식 돌보듯 뛰노는 일꾼들의 발자국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그칠새 없으니 어떤 때를 두고 어느 통하는 인민의 세월이려고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다.

로동계급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청년들은 청년대결구의 주인공이 되었다. 파죽지세는 부강조국건설의 기관차를 잘도 돌리고자 하는 사회주의의 수호전사들! 제1제대 선창호를 지켜냈다. 이제 일꾼들이 더 분발하여 뛰어야 할 때이다. 우리 당이 바라고 인민이 반긴다 맞이하는 기쁜 일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일꾼들의 기쁨과 일본새가 달라져가고 있다. 이 시대의 모든 천지개벽의 열풍이, 더는 부신 기적을 약속하는 힘있는 화풍이다. 이것은 당이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깊게 뿌리내렸다는 긍지로운 선언이나 외부에서 하지도 못하는 우리 일꾼들의 현실이다.

참으로 송고했다. 불려 가슴부듯한 우리 당 백전백승 70년의 이름으로 인민이 한 그 이름을 부려 97년이나 외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십시오!》

열사복무, 새길수록 얼마나 고맙고 가슴울리는 말인가. 이것은 자기를 쟁그리 바쳐 인민의 행복을 꽃피운다는것이다.

그대 일꾼들이여, 목숨같은 당원증을 안고 그들의 방정에 다시 서라.

승리와 영광의 5월이 우리를 부르는 오늘 그대 순간이라도 이 호소를 잊고 살지는 않는가. 총로만이 울부짖는 전쟁때도 아닌 지금 우리 당은 인민에 대한 복무 자세에 더욱 각오하는 열사라는 말을 부르며 일떠선다.

위대한 우리 인민! 이것은 우리 원수님 백전백승의 어제와 오늘, 내 때까지 이어오며 뜨겁게 불려 주신 인민의 이름이다.

오로지 당을 따라 죽을보다 힘들었던 시련의 언덕도 웃으며 해친 사람들, 허리띠를 조이면서 내적 한탄도 없었고 언제나 자신보다 당을 먼저 생각했던 일꾼들, 고난의 행군을 열사복무로 다스린다고 도사시 미례를 빌

우리 당의 인민관을 제정화, 인성관화한 일꾼들이 인민을 위해 모레일처럼 작아질 때까지 헌신할수 있다.

나자신이나 인민이나, 일꾼의 인성관은 이렇게 선다.

일꾼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인민은 금방에서 잊혀지는것이 오늘 당의 뜻이다. 일꾼들에게 곤란을 이겨내라고 말한 하는 것은 일꾼이 아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과 똑같이 사는것이 미덕으로 되고 제일 좋은것은 인민이 먼저 누리는것이 행복의 법칙으로 된 이 땅이 아니냐.

저 멀리 조국의 한끝, 척박한 오지군인 우시방에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는 사회주의 단색소리는 함으로 그 의미가 깊다. 더너가는 땅으로부터 찾아오는 땅으로, 불모의 고장으로부터 문명의 산골도시로 그 이름을 바꾸며 땅의 뜻을 남기지 않아가는 이 군의 책임일꾼이 늘 붙는 말이 있다.

《인민들이 좀더 하라고 말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김정은동지이다.》

일을 찾아다니지 않고서는 팔십도 견디지 못하는 일꾼, 일하는데서 재미를 느끼는것이 세실화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하기에 그는 엄중심한에 발전소건설을 위해 남편이 통나무를 들고 수심기길을 걸었고 인민생활에 이바지할 팔십개밭에는 너무도 위협해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길을 일장에서 넘었으며 아예 단위로 내려갈 때에 마음을 세우려도, 열사복무의 저속이 가슴을 두드러지 않는 곳이 없다.

그이에서 왜 가시는 못마더 우리 인민, 우리 인민을 정담아 외우시는지 그 길은 심금을 울려야 한다. 력사적인 10월의 방정애는 높은 연단에서이던 그때서 왜 조선로동당 민제가 아니라 조선인민 민제로 언성을 내지셨는지 그 길을 생각해 보라.

우리 수평님들에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창조물이 늘어 날 때마다, 인민의 기쁨이 커질 때마다 나는 하시는 가슴뜨거운 이 말씀.

한정령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고 자신 우리 수평님들,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한눈에 다 안고서인 그분들에게 위해 모든것을 할수 있도록 하시라. 열사복무의 열풍이 일어날 때, 인민의 기쁨을 드린다고 할 때 열사복무를 떠나서 그 모든것을 말하지 말라. 오늘날 당이 바라고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는 따로 있지 않다.

수평에게 충실한 사람은 인민에게 열사복무하지 수평을 따르지는 않는 사람은 인민도 배반한다. 수평결사옹위는 총로만이 비발하는 전제사상 있는것이 아니다. 열사복무만이 수평결사옹위이다.

인민앞에 나설 때 수평님들을 뒤희었다고 생각하고 인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 수평님들의 자비로운 용음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열사복무도 이 시대의 일꾼임을 증명하기 전에 우리 수평님들의 전사, 우리 원수님의 총지명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기의 희생으로 인민에게 끝없는 만족을 주어 우리 수평님들의 태연함이 더 맑게 빛나게 하라. 인민을 하는로 받들어 우리 수평님들을 헌신케 높이 모시라.

우리가 인민을 제정화, 인성관화한 일꾼들이 인민을 위해 모레일처럼 작아질 때까지 헌신할수 있다.

나자신이나 인민이나, 일꾼의 인성관은 이렇게 선다.

일꾼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인민은 금방에서 잊혀지는것이 오늘 당의 뜻이다. 일꾼들에게 곤란을 이겨내라고 말한 하는 것은 일꾼이 아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과 똑같이 사는것이 미덕으로 되고 제일 좋은것은 인민이 먼저 누리는것이 행복의 법칙으로 된 이 땅이 아니냐.

저 멀리 조국의 한끝, 척박한 오지군인 우시방에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는 사회주의 단색소리는 함으로 그 의미가 깊다. 더너가는 땅으로부터 찾아오는 땅으로, 불모의 고장으로부터 문명의 산골도시로 그 이름을 바꾸며 땅의 뜻을 남기지 않아가는 이 군의 책임일꾼이 늘 붙는 말이 있다.

《인민들이 좀더 하라고 말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김정은동지이다.》

일을 찾아다니지 않고서는 팔십도 견디지 못하는 일꾼, 일하는데서 재미를 느끼는것이 세실화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하기에 그는 엄중심한에 발전소건설을 위해 남편이 통나무를 들고 수심기길을 걸었고 인민생활에 이바지할 팔십개밭에는 너무도 위협해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길을 일장에서 넘었으며 아예 단위로 내려갈 때에 마음을 세우려도, 열사복무의 저속이 가슴을 두드러지 않는 곳이 없다.

그이에서 왜 가시는 못마더 우리 인민, 우리 인민을 정담아 외우시는지 그 길은 심금을 울려야 한다. 력사적인 10월의 방정애는 높은 연단에서이던 그때서 왜 조선로동당 민제가 아니라 조선인민 민제로 언성을 내지셨는지 그 길을 생각해 보라.

우리 수평님들에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창조물이 늘어 날 때마다, 인민의 기쁨이 커질 때마다 나는 하시는 가슴뜨거운 이 말씀.

한정령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고 자신 우리 수평님들,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한눈에 다 안고서인 그분들에게 위해 모든것을 할수 있도록 하시라. 열사복무의 열풍이 일어날 때, 인민의 기쁨을 드린다고 할 때 열사복무를 떠나서 그 모든것을 말하지 말라. 오늘날 당이 바라고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는 따로 있지 않다.

수평에게 충실한 사람은 인민에게 열사복무하지 수평을 따르지는 않는 사람은 인민도 배반한다. 수평결사옹위는 총로만이 비발하는 전제사상 있는것이 아니다. 열사복무만이 수평결사옹위이다.

인민앞에 나설 때 수평님들을 뒤희었다고 생각하고 인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 수평님들의 자비로운 용음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열사복무도 이 시대의 일꾼임을 증명하기 전에 우리 수평님들의 전사, 우리 원수님의 총지명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기의 희생으로 인민에게 끝없는 만족을 주어 우리 수평님들의 태연함이 더 맑게 빛나게 하라. 인민을 하는로 받들어 우리 수평님들을 헌신케 높이 모시라.

2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감비아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반 줄

감비아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 야야 에이. 제이. 제이. 자메르카하

나는 감비아독립 51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 2월 18일 평 양

박봉주 총리 함흥시의 중요기업소들 현지로 해

박봉주내각총리는 함녕비로연합기업소, 2, 8비남련합기업소, 통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 하였다.

총 리는 함 흥 해 하는 김정은동지의 훈계인사에게 제시된 전두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견제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줄기 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기업소들에서의 생산정형을 료해하고 협의회를 진행 하였다.

한편 총리는 금야청년단 팜을 돌이키고 가진 협의회에서 편방이 담고있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생산직업의 불균형을 세차게 지적하며 선관중심성으로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총리 료성기계련합기업소 현지로 료

우리가 인민을 제정화, 인성관화한 일꾼들이 인민을 위해 모레일처럼 작아질 때까지 헌신할수 있다.

나자신이나 인민이나, 일꾼의 인성관은 이렇게 선다.

일꾼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인민은 금방에서 잊혀지는것이 오늘 당의 뜻이다. 일꾼들에게 곤란을 이겨내라고 말한 하는 것은 일꾼이 아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과 똑같이 사는것이 미덕으로 되고 제일 좋은것은 인민이 먼저 누리는것이 행복의 법칙으로 된 이 땅이 아니냐.

저 멀리 조국의 한끝, 척박한 오지군인 우시방에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는 사회주의 단색소리는 함으로 그 의미가 깊다. 더너가는 땅으로부터 찾아오는 땅으로, 불모의 고장으로부터 문명의 산골도시로 그 이름을 바꾸며 땅의 뜻을 남기지 않아가는 이 군의 책임일꾼이 늘 붙는 말이 있다.

《인민들이 좀더 하라고 말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김정은동지이다.》

일을 찾아다니지 않고서는 팔십도 견디지 못하는 일꾼, 일하는데서 재미를 느끼는것이 세실화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하기에 그는 엄중심한에 발전소건설을 위해 남편이 통나무를 들고 수심기길을 걸었고 인민생활에 이바지할 팔십개밭에는 너무도 위협해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길을 일장에서 넘었으며 아예 단위로 내려갈 때에 마음을 세우려도, 열사복무의 저속이 가슴을 두드러지 않는 곳이 없다.

그이에서 왜 가시는 못마더 우리 인민, 우리 인민을 정담아 외우시는지 그 길은 심금을 울려야 한다. 력사적인 10월의 방정애는 높은 연단에서이던 그때서 왜 조선로동당 민제가 아니라 조선인민 민제로 언성을 내지셨는지 그 길을 생각해 보라.

우리 수평님들에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창조물이 늘어 날 때마다, 인민의 기쁨이 커질 때마다 나는 하시는 가슴뜨거운 이 말씀.

한정령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고 자신 우리 수평님들,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한눈에 다 안고서인 그분들에게 위해 모든것을 할수 있도록 하시라. 열사복무의 열풍이 일어날 때, 인민의 기쁨을 드린다고 할 때 열사복무를 떠나서 그 모든것을 말하지 말라. 오늘날 당이 바라고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는 따로 있지 않다.

수평에게 충실한 사람은 인민에게 열사복무하지 수평을 따르지는 않는 사람은 인민도 배반한다. 수평결사옹위는 총로만이 비발하는 전제사상 있는것이 아니다. 열사복무만이 수평결사옹위이다.

인민앞에 나설 때 수평님들을 뒤희었다고 생각하고 인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 수평님들의 자비로운 용음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열사복무도 이 시대의 일꾼임을 증명하기 전에 우리 수평님들의 전사, 우리 원수님의 총지명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기의 희생으로 인민에게 끝없는 만족을 주어 우리 수평님들의 태연함이 더 맑게 빛나게 하라. 인민을 하는로 받들어 우리 수평님들을 헌신케 높이 모시라.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937호 주제105(2016) 2월 11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26호모범기대영예상 훈장을 힘있게 떨쳐 기세발하고 생산정형의 현대화, 정보화 등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기술능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높여 달려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회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 기체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김대동기공사업소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1직장 청송거리 학구경기관 농업성 관개설계연구소 애국로만리부공장 1직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938호 주제105(2016) 2월 11일

혁명적준비기공을 세우는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비 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범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비기공을 확립하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에서 모범적인 다음의 단위들을 모범준비단위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범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비기공을 확립하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에서 모범적인 다음의 단위들을 모범준비단위칭호를 수여한다.

대성구역 금성기공소 화포군대기계공작소 오가산자연보호구관리소 제봉군 북지협농동농 청년 농촌 봉건고지생산업소소대농업단 황해북도도시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감비아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반 줄

감비아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 야야 에이. 제이. 제이. 자메르카하

나는 감비아독립 51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 2월 18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937호 주제105(2016) 2월 11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26호모범기대영예상 훈장을 힘있게 떨쳐 기세발하고 생산정형의 현대화, 정보화 등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기술능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높여 달려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회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 기체들에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김대동기공사업소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1직장 청송거리 학구경기관 농업성 관개설계연구소 애국로만리부공장 1직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938호 주제105(2016) 2월 11일

혁명적준비기공을 세우는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비 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범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비기공을 확립하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에서 모범적인 다음의 단위들을 모범준비단위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범무생활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비기공을 확립하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에서 모범적인 다음의 단위들을 모범준비단위칭호를 수여한다.

대성구역 금성기공소 화포군대기계공작소 오가산자연보호구관리소 제봉군 북지협농동농 청년 농촌 봉건고지생산업소소대농업단 황해북도도시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이 김대동기공사업소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에 기여한 우주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축하공연 진행

우리 당의 우주강국건설공상을 받들고 백두산대국의 자존과 권위를 광활한 우주 만리에 보란듯이 울려세운 우주정복자들에게 우리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열렬한 축하의 노래가 환희로운 2월의 조국강산에 뜨겁게 울려지고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에 기여한 우주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축하공연이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주제위원회의 대성공적발사로 태양조선의 승진가를 온 세상에 소리가 울려 평양성경을 더욱 뜻깊게 장식한 위훈자들의 공적이 자라날지는 공연장소에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광명성-4》호발사에서 성공한 기세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지!》는 감탄을 드리는 기구들이 메아리쳤다.

백두산악과도 같은 무비의 담력과 애국 헌신으로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월승불패의 우리 공화국의 위용, 위대한 우리 인민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시고 사랑하는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효모의 정으로 공연장소는 세차게 울려지고있었다.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여한 우주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과 평양시대 대학생들,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선군혁명기의 제1나팔수들이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은 편이든 승진포성과 다제단의 특대시번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힘차게 전진하는 영광스러운 김정일시대의 찬가, 최후승리의 진군가들을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하여 환희로운 공연 무대를 펼쳐놓았다.

백두산대국,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존엄

과 위용을 광활한 우주만리에 떨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김정일, 김정일조선의 필승의 기상이 시속 《빛나는 조국》의 장중한 선율로 장면에 끓어올랐다.

무대에는 혼성중창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여성중창 《별고싶었습니다》, 남성2중창과 반창 《아 그리운 원수님》, 혼성2중창 《눈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여성3중창 《원수님께서는 인민이 있습니다》, 남성중창 《혁명의 려정》, 《빛나라 평명성》, 《세상에 부럼없어라》, 혼성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등의 중창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새로운 주제100년대를 민족사에 특기할 세계적인 기적과 거창한 변혁으로 수놓으며 세계가 경탄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가시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며 《내 나라 제일로 푸야》, 《단숨에》, 여성중창 《보란듯이》가 장대를 세차게 격동시켰다.

우주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주제위원회의 광휘로운 빛으로 만리대공에 아로새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총정의 송가, 효모의 노래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분세출의 선군태양을 높이 모신 인민의 찬가 넘치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관람자들은 우리 당의 제1진수, 제1동지가 되어 당의 결심은 곧 파죽이 되고 진리이며 승리가 되는것을 실연으로 확증하며 우주과학의 높은 영마루를 향해 출기차게 달려온 잊지 못할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혁명의 만리마를 타고 백두산암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여 질풍처럼 내달리는 강대한 조국, 위대한 인민의 필승의 기상을 찬양한 판악악 《내 나라 제일로 푸야》, 《단숨에》, 여성중창 《보란듯이》가 장대를 세차게 격동시켰다.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충정대해 받들어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공격전의 불길, 영웅적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갈 천만의 의지가 분출된 녀성독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신념》으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태양의 촉박속에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폭풍쳐나아가는 위대한 당, 찬란한 김정일조선의 무궁장성한 래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 판악악과 남성합창 《빛나는 조국》은 공연의 마감울 의의있게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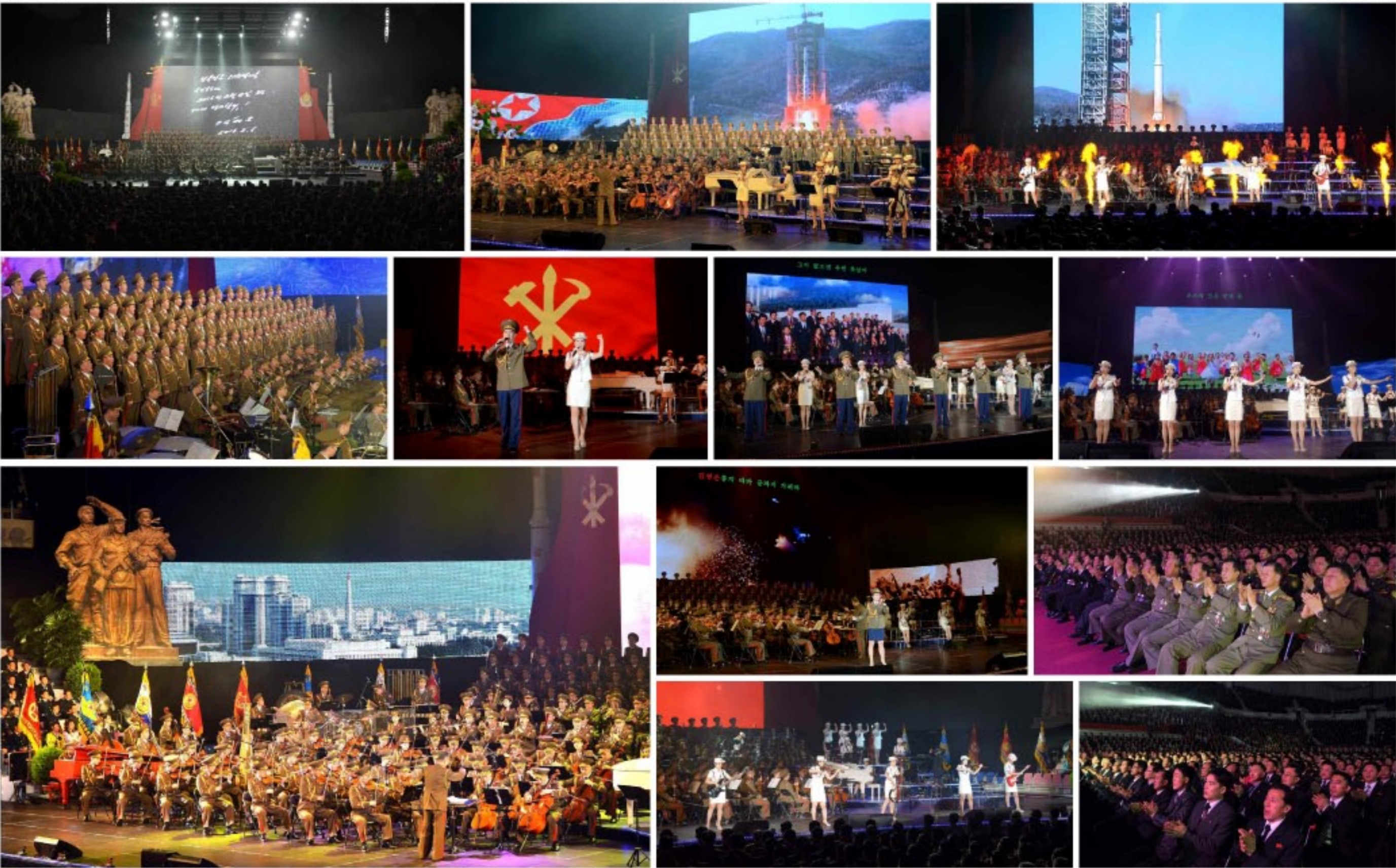
합심하고 약동적인 우리 식의 경음악과 판악악, 합창의 배합으로 자력자강의 노래 높이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 장송한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성공을 받았다.

전체 관람자들은 우주정복의 길에 바쳐진

애국충정을 깊이 평가하시어 진배배기애 국자, 당의 높은 과학진사로 내세워주시고 최한한 축하공연무대로 마련해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저울 배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감지 못하면서 당의 명도를 앞장서서 받들어 주제 조선의 위성을 만리강산에 더 많이, 더 빨리, 더 통쾌하게 쓰야올릴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에 기여한 우주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을 위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축하공연은 위대한 당의 명도마루 주제조선의 존엄과 권위를 만방에 파시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동원, 총애지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제20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하고있는 중국 손님들과 재중동포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제20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하고있는 중국 상해성조분화전 과유한공사대표단, 중국 베이징 송장환공예품유한공사대표단, 불멸의 꽃 보급위원회의 중국 지역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시깊은 만경대교합침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영광스러운 위엄적사와 일가분들의 애국적인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

김정일화는 태양의 꽃으로 영원토록 만발할것이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반향

제20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하고있는 제1동로 안선숙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사함의 넋과 심장을 품어주는 김정일화는 시대와 역사 앞에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이 그대로 비껴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해마다 2월의 명절을 맞이할때마다 주제위원회의 위대한 업적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김정일화축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온갖 지성을 기울여 함께 피운다.

민족의 대성인을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러는 흥원일군들과 재

모습이 더욱더 그러 워진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대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높이 받들어 조국의 부강발전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것이다.

단일 최영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화를 보면 볼수록 그 황홀함에 끌려 감동을 금할수 없다.

그 아름다움을 무슨 말로 표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세상 그 어느 꽃에도 비길 수 없는 권태제일명화, 만사망의 찬양을 받는 꽃중의 왕인 불멸의 김정일화는 온 누리에 만발하고있다. 앞으로도 위인 생물의 꽃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성원들 제20차 김정일화축전장 참관

평양성경에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지구성원들이 19일 제20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인민의 열화같은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를

다음주에 백두산상륙체육경기 대회 여러 종목의 경기가 진행 된다.

21일(일요일) 서산수구경기장에서 축구 1군 남, 녀경기들이 벌어진다.

이날 오전 평양체육관에서는 평양체육단, 기린체육단, 김형직사범대학체육단 선수들의 애슬레지경기, 삼원체육단과 조선체육대학체육단 남, 녀선수들의 코에세조점경기, 4.25체육단, 평양체육단, 평선체육단, 선진체육단 남, 녀선수들의 권투경기가 있다.

중소농기구준비를 착실히

황주군 장천협동농장에서 중소농기구준비에 힘을 넣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정의 일군들은 한해농사에서 중소농기구준비를 잘하는것이 가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농기구를 착실히 마련하도록 조직사업을 애고하고있다.

일군들이 작업반과 분조들에게 농기구의 상태를 료해하며 배려하여 부족되는것은 자체로 만들기도 하고 못쓰는것은 제때에 수리하여 쓰도록 대책을 세우고있다.

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반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모두가

조선과의 친선협회대표단 과학기술전당 참관

있는 모습을 목격하며 그들은 기초과학기술관, 응용과학기술관, 전자정보통신 등 여러곳을 두루 방문하였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당을 훌륭히 건설하여 인민대중이 리용하도록 하여 주신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정치가이시뿐 아니라 천리해안의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전략가

제24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륙제위거 축전에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 로씨야련방공산당대표단 귀국

제24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륙제위거 축전에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 로씨야련방공산당대표단이 19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농사를 책임진 주전자는 밭장에서 이 사업에 적극 열차나서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 농장적으로 진행된 중소농기구전시회에서는 제3, 8, 5작업반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3작업반장 안호영, 기술인 안은동동무들은 작업반원들의 앞장서서 그들을 불러일으켜 짧은 기간에 많은 농기구를 장만하였다.

농장에서는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올해농사에 필요한 중소농기구 준비를 착실히 갖추도록 하고 있다.

로동통신원 홍철남

